

첨단수사·인권침해 ‘DNA 두 얼굴’

〈유전자감식 기법〉

광산경찰, 8년 전 성폭행범 검거

동부경찰, 절도범까지 채취 남용

DNA(유전자) 채취가 경찰의 성범죄자 검거에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경찰서에서는 DNA 채취 대상에서 제외된 단순 절도범까지 무작위로 DNA를 채취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에 사는 박모(46)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5시께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모 아파트 김모(35)씨의 집에서 금품을 털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경찰은 강간치상 등 전과 20범인 박씨의 여죄를 추가하기 위해 구강 세포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8년 전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했다.

경찰이 증거를 들이대자, 박씨는 지난 2002년 1월 초 광주시 북구 한 주택에 사는 A(당시 17세)양을 성폭행한 적이 있다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자칫 영구 미제로 남을 뻔한 성폭행 사건이 유전자 DB 검색으로 해결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DNA 채취는 범인에게 ‘잡힐 수 있다’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가 큰 데다, 범인 검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경찰서에서 단순 절도범 등 채취 제외대상 피의자들까지 구강 세포를 채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장성에 사는 민모(32)씨는 지난 7

일 오전 10시께 동구 대인동 C주점에서 업주 윤모(54)씨의 휴대전화(50만원 상당) 1대를 몰래 가져갔다가 동부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절도전과 1범인 민씨의 주거가 일정치 않은 점을 감안해 범죄 예방차원에서 DNA를 채취하기로 했다. 경찰은 민씨에게 DNA 채취 여부를 물었고, 이에 민씨가 동의하자 면봉을 이용해 입 안의 구강세포를 채취했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순 절도 피의자는 DNA 채취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DNA법에는 살인, 강간·추행,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 강도, 방화, 약취·유인,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균형범상 상판 살해 등 11개 범죄의 피의자만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부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DNA 채취에 동의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광주지방경찰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피의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 절도 피의자의 DNA를 채취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

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주경찰청 과학수사팀 관계자는 “일반 경찰서에서 DNA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이 11개 범죄에 한정돼 있는 만큼 해당 범죄 이외의 피의자는 설명 동의를 했더라도 DNA를 채취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도 “동의 여부를 떠나 규정된 범죄 외의 사안에서 DNA를 채취했다는 사실 자체가 위법”이라며 “만약 동의를 했더라도 피의자들의 얼마나 자유로운 환경에서 채취동의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사기꾼 등친 사기꾼

보이스피싱범에 통장 빌려주고 3천만원 가로챈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범들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팔아넘긴 뒤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가로챈 20대 사기범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동부경찰은 8일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자신의 통장을 건네고 미리 준비한 체크카드로 수천만원의 돈을 인출해 가로챈 신모(28·광주시 남구 주월동)씨 등 2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해 12월께 광주 의행 4곳에서 통장을 개설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보낸 뒤 ‘돈이 입금됐다’는 SMS 문자를 받으면 즉시 인출하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총 2940만원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신씨 등은 ‘통장을 양도하면 10만~30만원을 준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체크카드 2개를 만든 뒤 이 가운데 1

개만 업자에게 보내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씨 등이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는 즉시 가로채기 위해 사전에 휴대폰 입출금 문자통보서비스에 가입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신씨 등은 또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리니지 게임 레벨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장모(25)씨 등 11명으로부터 243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리니지 게임 피해를 조사하던중 특정한 직업이 없는 신씨의 통장에 한꺼번에 많은 돈이 입금된 것을 의심해 신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인터넷 IP 추적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의자들을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나원침



한나라당 의원 9명에

12억 원 집단 손해소

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단 공개에 동참한 한나라당 의원 9명을 상대로 12억원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또 명단을 처음 공개한 같은 당 조전혁 의원에 대한 금융자산 압류가 ‘잔액부족’으로 사실상 무산되자 세비 압류 작업에 착수했다.

전교조가 쟁점한 소송 액수는 총 12억원 정도로,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5864명에 대해 1인당 20만원씩 산정한 것이다.

소송 대상이 될 한나라당 의원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김용태, 김효재, 박준선, 장제원, 정두언, 정진석, 정태근, 차명진 의원 등 9명이다.

이로써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한 전교조의 전체 소송 액수는 조 의원에 대한 소송(12억원)과 간접강제이행금(1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25억5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연합뉴스

‘키스방’에서 키스만 하지 않고...

성다발

한은 8일 ‘키스방’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여종업원 심모(20)씨와 손님 강모(36)씨를 상대로 앞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키스방에서 강씨로부터 현금 4만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

○경찰은 또 달아난 키스방 업주 엄모(36)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소재 파악에 착수.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억대 보험금 부당 수령

나이롱 환자 10명 수사

광주 남부경찰

국내 한 보험사가 광주·전남지역 일부 보험가입자들이 억대의 보험금을 부당수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H보험사는 최근 김모(46·나주시)씨 등 보험 가입자 10여명이 병상이나 상해를 입은 것 처럼 속여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총 1억여원의 보험금을 부당수령했다는 진정서를 냈다.

H보험사는 진정서를 통해 김씨 등이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로 부상을 입은 것처럼 가장해 적게는 수백만원

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타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경우 지난해 9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며 광주 의 한 병원에 2주간 입원해 42만원을 타내는 등 4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경찰은 자신이 근무하는 모 전기업체에서 월급 120만원을 받는 김씨가 지난해부터 무려 17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매달 130여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또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입자들도 각종 상해나 부상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10억대 화재보험 들고

자신의 식당에 불 질러

광산경찰 30대 구속

광주광산경찰청은 8일 10억원대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자신의 식당에 고의로 불을 지른 이모(34)씨를 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 23일 밤 10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자신의 식당에 불을 내고 이를 뒤 또 다시 불을 질러 3억9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5월 4

일 11억4300만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내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식당 보증금 등 8500만원으로 영업을 시작했지만 공사비 2억5000만원과 집가류 6300만원이 투자된 것 처럼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 5억1000만원의 보험금지급 청구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씨는 경찰에서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저소득층 추석 선물

대한 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김필식) 봉사자들이 8일 광주시 북구 매곡동 지사 구호창고에서 추석에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할 선물 운송작업을 하고 있다.

지나 1일 밤 10시께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A병원 앞 도로를 건너던 고모(71·정각장애 2급)씨가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에 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70대 청각장애인이 아들 집에 가기 위해 시내버스를 타려고 도로를 건너던 중 뺑소니 차에 치여 숨진 안타까운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광주 동부경찰은 8일 고씨를 치어 숨지게 한 안모(55·광산구 우산동)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시간을 전후로 광산구와 나주를 오가는 차량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안씨를 붙잡았다.

한편, 광산경찰은 8일 고씨를 치어 숨지게 한 안모(55·광산구 우산동)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시간을 전후로 광산구와 나주를 오가는 차량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안씨를 붙잡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오는 버스를 발견하고 급히 도로를 횡단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전 고씨는 친구들이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권유했지만, “아들 집으로 가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경찰 관계자는 “농사를 짓는 고씨가 모처럼 시내 구경을 왔다가 아들을 보려고 가려다 번을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경찰은 8일 고씨를 치어 숨지게 한 안모(55·광산구 우산동)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시간을 전후로 광산구와 나주를 오가는 차량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안씨를 붙잡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www.hanbitgosi.co.kr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7·9급 행정직/세무직/법원직/검찰직
교행직/농업직/기술직/소방직/교정직

호남최대 7·9급 공무원시험전문학원 — 개강 1차 10월 1일 2차 10월 4일

한빛고시학원

전남대 북구청 앞 062-234-0234 직영 김영면입학원 227-8088